

새차 평균 5만불 돌파, 이자 줄이는 '20% 규칙'

자동차 구매는 많은 이들에게 인생 최대의 소비 중 하나다.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 Kelley BlueBook에 따르면, 2025년 신차 평균 가격은 약 5만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비싼 차량을 구매할 때, 적절한 금융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월 납입금뿐 아니라 전체 비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20% 규칙'은 차량 구입 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 '20% 규칙'이란

수많은 운전자들이 2025년에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것이다. 이럴 경우 금융 플랜에 따라 차량의 자산 가치, 월 납입금, 총 이자 비용이 달라진다.

JP모건 체이스은행에 따르면, 차량 가격의 최소 20%를 초기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대출 원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납입할 이자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25년형 도요타 RAV4를 4.99% 금리의 60개월(5년) 할부 조건으로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이 29,250달러일 때 20% 계약금은 약 5,850달러다. 이를 납입하면 실제 대출 원금은 약 23,400달러가 된다(세금·수수료 제외 기준). 이 경우 월 할부금은 약 440달러 수



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즉, 초기 계약금이 클수록 이자 비용이 줄고, 그만큼 차량에 대한 자기 자본(Equity) 비율이 높아져 재무적으로 더 유리하다.

■ 차량 금융 이자 줄이는 방법

할부금을 조기 상환하면 총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납입금 외에 추가로 원금 상환을 진행하면, 계약 기간보다 빨리 차량을 소유할 수 있고 그만큼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상환 이력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할부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한 계약금을 많이 납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20% 규칙"은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 2025년 평균 차량 할부금, 이자율

소비자 신용평가기관 익스페리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평균 자동차 할부금은 675달러에 달한다. 또한 신용점수가 661~780점인 소비자의 평균 차량 대출 이자율은 6.7% 수준이며, 점수가 낮은 운전자(501~600점)는 평균 13.22%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구입 전, 반드시 따져볼 세 가지

새 차 가격과 이자율이 동시에 오르며 차량 구입 비용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 전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

- 차량 가격뿐 아니라 세금, 수수료, 이자 등 총비용을 계산할 것
- 월 납입금이 자신의 예산 범위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 계약금을 높게 설정해 전체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고려할 것

사진=shutterstock

렉서스, 2026년형 ES 전기차로 전환

300마일 주행거리, 테슬라 충전 호환성 주목

렉서스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렉서스는 상하이 모터쇼에서 2026년형 렉서스 세단 ES의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며, 순수 전기차(BEV)와 하이브리드 모델을 모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 모델의 경쟁력 있는 주행 거리다. 렉서스에 따르면, 전기 모델은 환경보호청(EPA) 기준 최대 300마일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전문가인 인사이트EVs는 이를 "인상적인 수준"이라 평가하며 주목했다.

이번 신형 ES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충전 포트의 표준화다. 전기차 업계가 테슬라 방식 충전 포트에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형 ES는 '북미 충전 표준(NACS)' 포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렉서스 ES 운전자들은 별도



▲ 2026년형 렉서스 ES, 사진=Lexus

의 어댑터 없이 전국 수천 개의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 속도도 실용적인 수준이다. DC 고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0분이 걸린다. 인사이트EVs는 "최고 수준의 충전 속도는 아니지만 일상 운전자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26년형 렉서스 ES는 고급 세단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모델로, 성능과 효율성, 인프라 대응력을 갖춘 차세대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로 전환하면 유지비와 연료비 측면에서도 혜택이 크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는 연간 평균 1,500달러의 연료 및 정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일부 모델은 최대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